



축령산 편백·삼나무숲은 숲이 내뿜는 피톤치드로 인해 여름의 흔적을 지우고 추석 연휴 동안 쌓인 심신의 피로를 씻을 수 있다.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찌들고 지친 심신 고향의 품에서 재충전

● 추석연휴 가볼만한 곳

추석연휴 고향나들이는 옛것과 만나는 과거로 여행이다.

조상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회의 삶에 지친 내면을 고향의 품에서 재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올 해는 짧은 추석 연휴로 차례와 성묘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가까운 숲길과 산사를 찾아 마음을 정돈하고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추석 연휴 가볼만한 여행지를 소개한다.



축령산 휴양림의 6km 임도는 삼림욕을 겸해 천천히 걸어도 두 시간이면 넉넉하다.

▲장성 축령산=이곳에 서면 온 몸이 녹색으로 물드는 것 같다. 참빗처럼 가지런한 편백나무와 삼나무 숲. 영화에서나 볼지언정 원시림에 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고, 날 숨과 들숨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나 의문이 든 순간 마음은 어느새 평안을 찾는다.

여름내 험클어졌던 심신이 숲 속에 들어서자마자 퍼즐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하나하나 정돈되는 느낌이다. 이곳에 서면 숲의 아름다움에 놀라고, 이 거대한 숲이 한 개인의 고집스러운 열정에 의해 가꿔졌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된다.

축령산의 숲은 춘원 임종국(林鍾國·1915~1987)이라는 한 개인의 고집스러운 열정과 혼신의 노력에 의해 가꿔졌다.

조용히 사색의 시간이 간절할 가을. 이같은 멋진 숲길을 제공해준 그의 집념과 의지에 가슴이 절로 뭉클해지고 우리의 삶과 사회의 세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묵직한 교훈도 얻게 된다.

장성군 북일면 금곡마을과 서상면 모암마을에 걸쳐 있는 축령산 숲의 아름다움은 이미 여러 차례 공인을 받았다. 산림청이 '22세기 후손에게 물려줄 숲'으로 지정했고, 2000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다.

하늘을 향해 거침없이 뚝뚝 뻗어 있는 편백나무와 삼나무의 위용은 대단하다. 구불구불한 길과 망망한 수해(樹海)가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치를 자아낸다. 이 축령산 숲은 자연림이 아닌 인공조림지다. 우리나라 인공림 가운데 편백나무와 삼나무를 심은 곳은 축령산이 처음이다.

평탄한 6km의 임도는 자동차로도 오갈수 있지만, 삼림욕을 겸해 천천히 걸어도 두 시간이면 넉넉하다. 피톤치드(나무가 내뿜는 휘발성 향기)의 왕이라는 편백나무, 소나무나 전나무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발산한다. 청신한 나무향이 코를 찌른다. 이 숲의 내력 때문일까. 다른 숲에서보다 유난히 몸과 마음이 맑아진다.

편백나무 숲길의 출발지점은 금곡마을. 영화 '대백산맥' '내 마음의 풍금', 드라마 '왕초'의 배경이 됐던 초가 마을로, 시간을 내 둘러볼 만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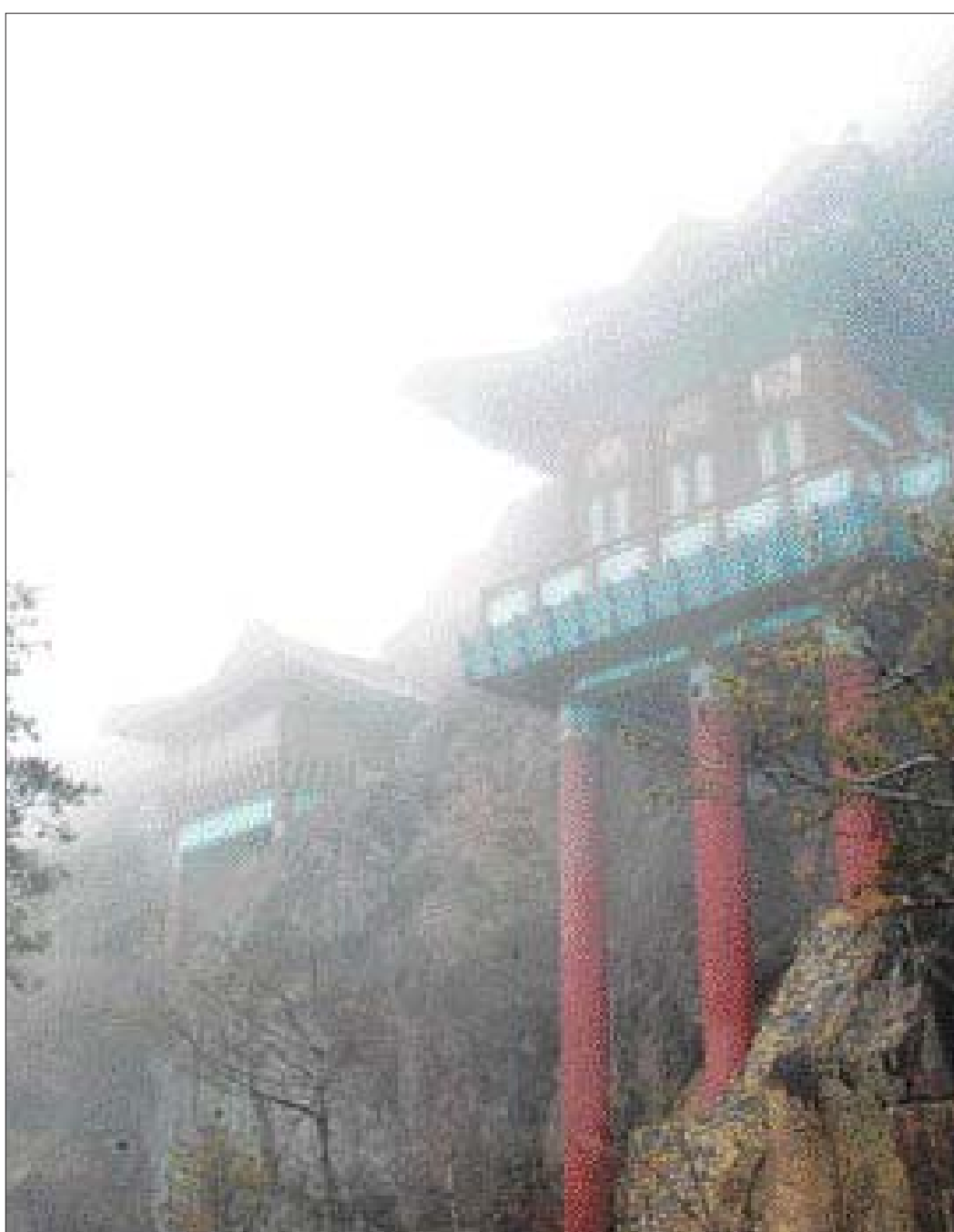
1950~60년대 시골 농촌의 전형을 보여주며, 20여 가구 100여명이 웅기종기 모여 살고 있다.

휴양림 입구에는 '세심원(洗心院)'이라는 아담한 황토집이 세워져 있는데 30여년간 장성군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던 변동해(54)씨가 '마음의 찌든 때를 씻고 가라'며 지은 것이다. 마을에는 그가 지은 소박한 초가 미술관도 있다.

▲사성암=구례군 문척면 죽마리에 있는 오산은 높이 531m의 아담한 산이다. 구례하면 지리산, 섬진강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지리산과 섬진강의 큰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 오산에 올라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오산의 오(嶽)자는 자라 오자다. 이 이름의 유래는 몇가지 속설이 있다. 중국 전설속에 자라가 등에 지고 다닌다는 바다속 큰산이 오산이라는 것.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오산을 자라가 섬진강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자라를 가리키는 鰲(자라

울창한 숲속서 맑은 공기 마시며 휴식 가까운 산사·녹차밭 찾아 사색의 시간



531m 높이의 오산 정상 바로 아래에 자리한 사성암에 이르러면 구례를 관통하는 섬진강과 구례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 기암은 원효·도선·진각·의상대사 등 네 성인이 수도했다 해서 사성암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오)자를 이름에 붙였다는 설이다.

오산에 오르는 길은 등산로와 차도가 있다. 죽마리 각급마을로 접어들면 조그마한 등산로가 나온다. 넉넉히 1시간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사성암 깎말이 있는 곳부터는 찾길이 나 있어 자동차로 오를 수 있다.

사성암이 있는 곳은 531m이고 그 남동쪽으로 약 200m정도 더 오르면 정상(542m)이다. 길게 굽이쳐 올라가는 섬진강과 지리산이 눈 앞에 장엄하게 펼쳐진다.

사성암(四聖庵)은 백제 성왕(544년) 연기조사가 세운 이래 원래 오산암이라 불리다 원효·의상·도선·진각 네 성인이 이곳에서 수도했다 해서 사성암이라는 현재의 이름을 얻었다.

사성암은 여느 절과는 달리 넓은 마당이 없다. 대신 가파르게 올라가는 돌계단이 독특한 풍경을 자아낸다.

좁은 돌계단 옆에는 1m높이의 돌담이 쌓여져 있고 돌담위에는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이 저마다 소

원을 기원하면 이름을 적어놓은 기와가 가지런히 포개져 있다.

짜아지른 듯한 바람에 불어 지은 약사전이 마치 중국의 3개 석굴중 하나인 둔황의 모가오루를 하나 떼어다 붙여놓은 것 같다.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 전각에 오르면 법당의 안쪽 알벽에 약사여래불을 새긴 압각화가 보인다. 원효대사가 수행중 손톱으로 긁어 새겼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마애불이다.

대웅전을 지나 산신각 왼편에 한 사람이 수도하기 알맞은 크기의 자연굴이 뚫어져 있다. 굴을 관통해 지나가면 터가 나온다. 이 터에 서면 지리산 노고단과 왕시루봉, 차일봉이 병풍을 두른듯이 둘러싸고 있으며 그 아래 너른 벌판 한가운데 구례읍내가 손바닥만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 옆에 바위틈이 조금 벌어져 있어 한쪽은 좌선대요, 또 한쪽은 우선대다. 원효스님과 도선스님께서 앉아 좌선하던 곳이라 한다.

큰 스님의 인연터라 일년에 세 번 이곳을 찾아 바위 사이를 세번 뛰어넘으면 소원성취한다는 전설이 전한다. 그래서 이름이 뽕바위다.



굽이굽이 끝없이 펼쳐진 녹색의 차밭.

▲보성 녹차밭=보성군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차(茶)를 재배하는 지역으로 '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등 여러 문헌에 차의 자생지로 기록되어 있을 만큼 한국 차의 본고장으로 불린다. 현재 보성군에서 생산되는 차는 전국 차 생산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다.

보성읍에서 울포해수욕장으로 가는 18번 국도를 따라 8km쯤 가면 북체가 나오고, 이 북체 아래로 굽이굽이 접은 녹색의 차밭이 끝없이 펼쳐진다.

정원수처럼 잘 다듬어진 차나무들이 산비탈의 구부러진 골짜기를 따라 늘어선 바닷물이 일면 마치 푸른 바닷물이 잔잔한 파도를 일으키듯 물결치고 주변 경관 역시 빼어나 사시사철 구분 없이 관광객이 찾는다. 인근 울포해수욕장의 녹차 해수탕에서는 귀향길에 쌓인 피로를 씻어 풀 수 있다.

이외에 가까운 ▲담양소쇄원과 ▲담양 리조트 ▲화순금호리조트에서 귀향길 피로를 풀어보는 것도 좋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